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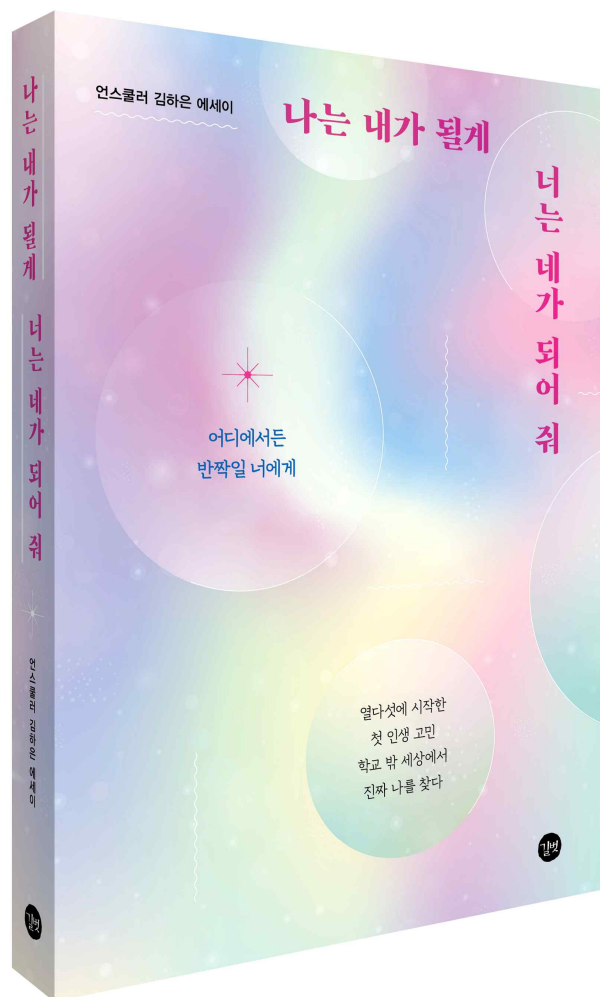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6 대표전화 (02)332-0931 팩스 (02)338-0388 홈페이지 www.gilbut.co.kr

담당자 자녀교육서팀 이미현 02-330-9871 lmh@gilbut.co.kr

어디에서든 반짝일 너에게 나는 내가 될게 너는 네가 되어 줘

- 언스쿨러 김하은 에세이 -



지은이 | 김하은 발행일 | 2023.6.30.

분야 | 에세이(청소년) 판형 | 140*200 형태 | 무선철

페이지 | 268쪽 정가 | 17,800원 ISBN | 979-11-407-0469-9 (43810)

■ 책 소개

“괜찮아, 꿈이 있다면 길을 잃지 않을 테니까.”

열다섯에 시작한 첫 인생 고민 학교 밖 세상에서 진짜 나를 찾다

요즘 선행학습은 중학생 때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 유치등까지 내려간다. 언제부터가 ‘입시체계는 초등부터’라는 말은 예사말이 되었고, 초등 의대반 열풍이 더는 놀랍지 않다. 어차피 해야 할 공부를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뿐이러는데, 어째서 이 논리가 ‘꿈’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 ‘어차피’가 아닌 ‘반드시’ 답해야 할 일생일대의 질문임에도 “일단 중학교에 가서, 일단 고등학교에 가서, 일단 대학교에 가서...”라는 말을 방패 삼아 최대한 유예한다. 꿈이라는 게 일단 학교에 들어가기만 해도 딱딱하고 찾아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에 아이들은 오늘도 흔들리고 방황한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 나에 대한 정보는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도 알려줄 수 없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내가 달라지는 것뿐이다. 열다섯에 첫 인생 고민을 시작하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고교 미진학이라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저자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성적도 꿈도 딱 남들만큼만 가지려다 무엇을 잃었는지, 학교 밖 세상에서 찾아낸 진정한 나다움은 무엇인지 등 3년여 파란만장한 언스쿨 분투기를 담았다. 검정 고시·대안교육·해외유학 준비하기, 각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하기 등 현명한 언스쿨러로 살아남는 방법부터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의 5인 5색 인터뷰까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10대의 진솔한 목소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 출판사 리뷰

학교 밖 청소년 40만 시대 ‘진짜 나’를 찾아야 하는 이유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업중단 학생 현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수는 4만 명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고등 1년의 전환학년 과정을 운영하는 오디세이학교나 꿈드림, 친구랑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점차로 확대 되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으로 완전히 달라진 학습 패러다임 또한 아이들을 교실 없는 환경으로 이끌고 있다. 한편 보통의 개념이 무너지고 중간이 사라지는 ‘평균 실종의 시대’가 되면서 남들만큼 하는 중위권 아이들, 소위 명문 대학 진학이 불투명한 아이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이제 남들과 같은 대학을 목표로 남들만큼 공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거나 누구보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그 꿈이 하루아침에 찾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결국 지금 아이들이 선행해야 하는 것은 국영수가 아닌 ‘나를 찾는 공부’가 아닐까. 10대에는 내가 누구인지, 언제 가장 행복한지 깊이 탐색할 시간이 필요하다.

언스쿨! ‘나답게’ 살기 위한 이유 있는 선택

“학교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스쿨 에세이 《나는 내가 될게 너는 네가 되어 줘》를 쓴 저자도 보통의 10대와 다르지 않은 매일을 버텨왔다. 학교-집-학교-집 무한 루트를 반복하며 학교라는 네모반듯한 틀에 스스로를 끼워 맞췄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잘하는 게 있나? 나는 대체 누구지?” 마음의 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남들만큼만 하면 어떻게든 대학까지는 가겠지만 그 이후의 삶이, 아니 당장 내일의 내가 행복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정형화된 학교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 달라지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교 미진학을 선택하고 스스로 배움의 이유를 찾아가는 언스쿨러가 되기로 했다. 하늘을 향해 던질 때보다 바닥을 친 탕탕볼이 더 높이 튀어 오르듯, 마음의 바닥까지 내려가 ‘진짜 나’를 제대로 마주하기로 했다.

이 책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언제 가장 행복한지 ‘나’라는 존재를 탐구하기 위해 자신에게 끝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일어섰던 언스쿨러의 성장을 담은 에세이다. 입시를 목표로 효율적인 공부법만을 알려주는 홈스쿨러 이야기와는 다르다. 저자는 그동안 마음의 소리를 외면한 채 목적 없이 달려온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좋아하는 일, 도전해보고 싶은 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희미해진 자기만의 색깔을 조금씩 되찾았다.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10대 철학자, 비주얼싱킹 마인드맵 강연자, 의류 브랜드 창업가, 미국 유학 준비생 등 다채로운 캐릭터로 세상과 소통하며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통의 길과 나다운 길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우선 자신의 삶과 제대로 마주할 용기부터 내보기를 권한다.

불투명의 숲을 지나

어디에서든 반짝일 너에게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10대가 방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대가 달라졌지만 바뀐 것이 없는 학교라는 울타리 속 현실 공교육의 문제점을 꼬집는다. ‘내가 문제인 걸까? 나만 이렇게 힘든가?’ 친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지 못해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면 특히 위로가 될 것이다. 2부에는 검정고시 준비하기, 시간 관리 노하우, 미리 알아두면 좋은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 언스쿨러에게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를 세세하게 담았다. 마지막 3부에서는 꿈을 찾기 위해 분투했던 3년여 여정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도 않았고, 현재 성공의 정점에 오른 것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삶의 모양이 있고, 또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각 장의 끝에는 저자가 만난 학교 밖 청소년 5인의 인터뷰도 실었다. 왜 학교 밖을 선택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학교 밖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 미지의 숲을 향해 가는 데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모두가 어디에서든 자기만의 색을 찾아 밝게 빛나길 바란다.

추천사

이 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의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또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언스쿨러’라는 표현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자 말마따나 학교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이 당연한데 아직 현실에서는 낯선 표현이지요. 우리 교육이 더는 대학입시 준비로만 이해되지 않기를, 학생들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행복을 축적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승섭(KAIST 전 교학부총장)

★이 책을 먼저 읽은 독자들의 진심이 담긴 말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청소년기 고민을 방향이 아닌 열정으로 채운 언스쿨 이야기! (박*은)

-아이가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학교 밖의 길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 먼저 걷고 있는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서*빈)

-보통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말하는 어른들의 편견에 통쾌한 펀치를 날리는 책. 저도 엄마로서 용기를 갖게 되었고, 내 아이도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정*윤)

-학교 안팎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생생하게 담았네요.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부모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이*래)

-열다섯에 첫 인생 고민을 시작하고 자신만의 리듬대로 나아가고 있는 하은 님에게 무조건적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 책은 남들과 다른 선택을 앞두고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백*은)

-비록 뽀족할지언정 아이들이 자기만의 강점을 갖고 닦아 가장 나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반짝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이 책이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박*연)

■ 저자 소개

김하은

네모반듯한 학교라는 틀 안에서 남들만큼 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그 결과 나를 지우는 데 성공했지만 대학 졸업 후에도 남들처럼만 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웠다. 열다섯 그해 겨울, 잃어버린 자아와 진짜 꿈을 찾기 위해 고교 미진학을 선택했다. 다시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시기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자신에게 끝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는 중이다. 초행길이라 헤맬 때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언제 행복한지 망설이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성공의 정점에 오른 것도 아니고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현재진행형 언스쿨러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이 책을 썼다. 나를 제대로 탐구하고 싶지만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거나 세상 속으로 일찍 들어오기 망설여지는 친구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 책 속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창의성’, ‘개성’, ‘나만의 장점’을 기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너는 뭘 잘하니?”라고 물으면 “음... 잘 모르겠어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라며 머뭇거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대개 “저는 이걸 잘해요!”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 눌러 입을 꼭 다뭍니다. 괜히 내 생각을 말했다가 남들과 다르다는 게 들통나면 그대로 끝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약간의 가능성조차 두려워합니다. 용기 있게 말했는데 평가당하면 어떡하지? 한국에서는 남들 눈치를 보느라 자신에 관한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합니다. -38p. <모두가 같은 춤을 추는 디스토피아>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난데.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째서 나는 계속 지워지고 있지?’ ‘왜 계속 같아지려고 하고 평균에 안주하지?’ ‘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본질을 뿌리까지 탈색하고 있지?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고민해 보지 않은 채로 살아온 대가는 컸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러다 꿈까지 비슷해지지 않을까? 지금은 학생이니까 괜찮지만 내 미래에 정말 내가 존재하긴 할까? 수많은 의문과 자책 속에서 처음으로 학교가 아닌 제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51p. <학교를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의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자유는 오히려 내 마음을 구속하고 불안을 자아냅니다. 학교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야자도 하고 학원도 엄청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들의 반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엄청나게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학교에 다녔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 번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자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학교 밖에는 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평균도, 지금 내가 하는 공부량이 충분한지 파악할 시험도 없어 사소한 의심의 씨앗을 키우고 스스로 땅굴을 파고 내려갈 여지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입니다. 혼자 고립되지 말고 여러 소셜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친구들을 찾아 나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생각 외로 학교 밖 청소년 모임은 많습니다. -121~122pp. <세상과 소통하기>

검정고시는 학교 시험이나 수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 60점만 넘기면 합격이고 점수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고졸 검정고시의 경우 고득점을 노리는 것이 입시 준비에는 유리합니다. 검정고시는 일반학교 내신보다 쉽기 때문에 전 과목 100점을 맞아야 대학에서 최대 3등급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따라서 수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들은 점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초·중등은 몰라도 고등 검정고시의 경우 부분 과락이나 턱걸이 합격은 입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8p. <검정고시 격파하기>

미국 대학 원서 접수는 대체로 커먼Common 앱 또는 코얼리션Coalition 앱을 이용하는데 저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입력을 요구하는 정보량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본 인적 사항과 재정 관련 자료는 물론 지난 3년간의 교육과정, 시험이나 자격증 정보, 대외활동, 수상 경력 그리고 650자의 퍼스널 에세이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이 있는 항목의 경우 몇 달간 고심하며 단어와 표현을 골랐습니다. 연말에는 학교마다 요구하는 에세이를 다듬느라 진땀을 빼며 가장 가고 싶은 학교에 온라인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인터뷰를 잡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이 또한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227~228pp. <대학에 가겠습니다>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니 보입니다. 몇 년 빠른 것도, 느린 것도 인생이란 긴 레이스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ですよ. 어떤 이유로 학교 밖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면 됩니다. 언스쿨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집 두 아이조차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걸요. ‘남들보다’, ‘남들만큼’은 ‘남’이 기준입니다. 제 기준을 내 아이로 맞췄기에 언스쿨러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리지만 한 발 한 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아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부족한 엄마일 뿐입니다. -266~267pp. <나는 언스쿨러 엄마입니다>

■ 차례

추천사

프롤로그. 불투명의 숲을 지나

/ 1부. 학교 종이 땡땡땡 /

1장. 나는 학교에서 빛나지 않는다

‘자기주도’ 포켓몬 · 열한 살 중학생 · ‘다름’과 ‘틀림’ 사이 외로움 · 모두가 같은 춤을 추는 디스토피아 · ‘진로’라는 필수과목 · 학교를 바꿀 수 없다면 · 다시 출발점으로 · #너를 보여줘 1. 너른 우주를 산책하는 코스모

2장. 학교는 변하지 않는다

1등은 행복할까요? · ‘생기부’ 아닌 ‘기생부’ · 맛있는 독후감 레시피 · 봉사 성적이 봉사 정신을 기른다? · 직업체험도 선착순 · 체험과 오락 사이 · 자유학기제, 꿈 나와라 딱딱? · 비효율의 왕 · 나는 달라질 수 있다 · #너를 보여줘 2. 수능 공부하는 수학 천재

/ 2부. 사건의 지평선 /

3장. 언스쿨러 되기

Re, 나만의 언스쿨 철학 · 세상과 소통하기 · 질긴 꼬리표? 자랑스러운 트로피? ·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 준비된 사람 · 부모님의 역할 · 운은 거들 뿐 · #너를 보여줘 3. 매일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홈스쿨러 김푸름

4장. 언스쿨러로 살아남기

검정고시 격파하기 · 24시간 통제하기 · 대안학교 찾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용하기 · 대학 입시 준비하기 · 끊임없이 질문하기 · #너를 보여줘 4. 철학하는 모험가 김재형

/ 3부. 아이 엠 /

5장. 나만의 스테이지

청소년 작가라는 꿈 · 10대 철학자 · 대학에 가겠습니다 · 자칭 마인드맵 전문가 · 인사이트아웃 창업 스토리 · 학교 밖 청소년 의류 브랜드 디프런트롱 · 세상으로의 문을 열어주는 글로벌리더십캠프 · 하르미온느의 시간표 · #너를 보여줘 5.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김시윤

에필로그. 어디에서든 반짝일 너에게

부록. 나는 언스쿨러 엄마입니다